

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(FDI),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

Phan Thanh Hoan Special Researcher
Hue University, Vietnam

■ 주요 내용

- 지난 몇 십년간, 해외직접투자(FDI)는 베트남의 사회·경제적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. 그러나 저부가가치, 제한된 기술 이전, 환경오염 등 베트남 FDI의 한계가 돋보임.
- 베트남의 FDI 유치 정책은 질적 성장보다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으며, 엄격한 환경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음.
- 향후 베트남 FDI 유치는 고부가가치 창출, 기술발전 및 환경 보호 원칙을 우선으로 법률 제도를 개선해야 함.

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
TEL 044-414-1076 E-MAIL emerics@kiep.go.kr
http://www.emerics.org/ http://www.kiep.go.kr/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제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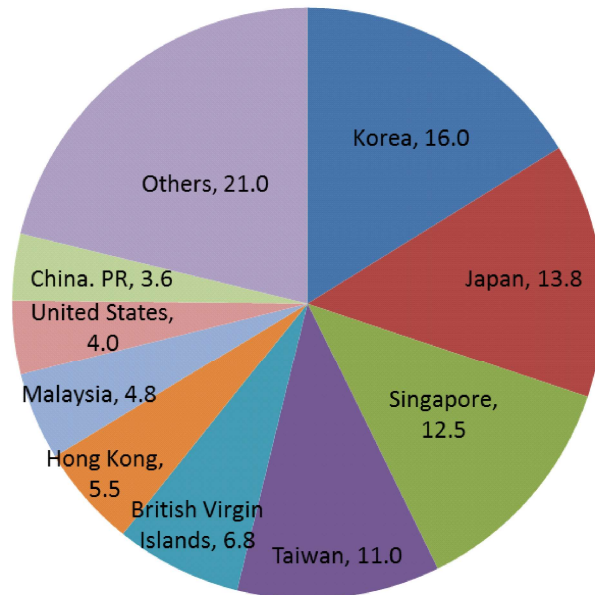
이슈 현황

▶ 베트남의 사회·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외국인 직접투자(FDI)

- 지난 몇 십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는 베트남의 발전을 이끌어 옴.
 - 2015년 말까지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21,300건에 달하며, 총 투자액 3,130억 달러를 기록함. 이는 베트남 전체 투자액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임.
 -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해 최대 혜택을 받은 분야는 제조업으로, 전체 해외 투자자본의 57.7%, 약 1,678억 달러가 제조업 분야에 유입됨.

표 1. 베트남의 FDI 누적 투자액 (1990~2015)

(단위: %)



자료 :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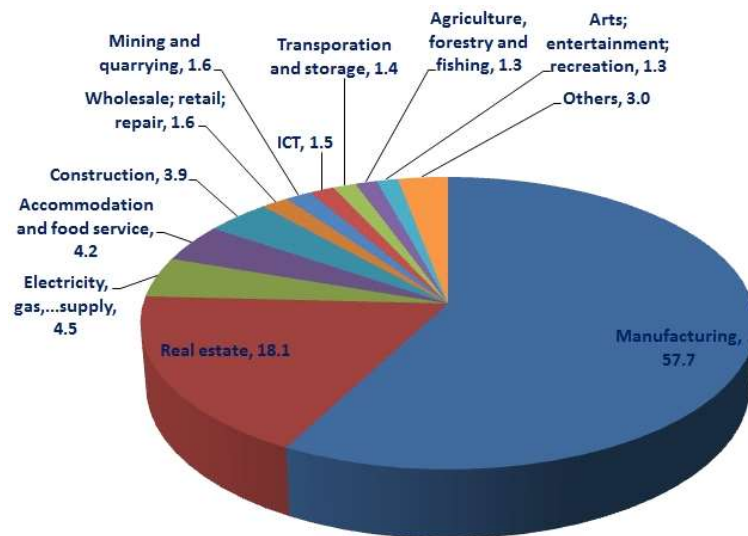
▶ 그러나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낮은 부가가치, 기술 이전의 제한, 환경오염이라는 한계가 있음.

-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업에서도 전기조립, 섬유, 제화 등 외국인 직접투자가 저부가가치-노동집약적 산업에 편중됨.
 - 한 예로, 베트남의 전기산업 분야는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대부분의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함.
 - 2015년 수출액은 320억 달러였지만, 동시에 수입액 역시 280억 달러에 달함.

-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해외 투자자 지분 100%로 출자하는 투자 형태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.
 -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중 75%는 해외 투자자가 100% 지분을 소유한 기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, 해외 투자자와 베트남 현지기업의 합작 투자는 13%에 불과함.
 - 이러한 투자 형태로 인해 베트남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과 확산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표 2. 2015년 분야별 FDI 누적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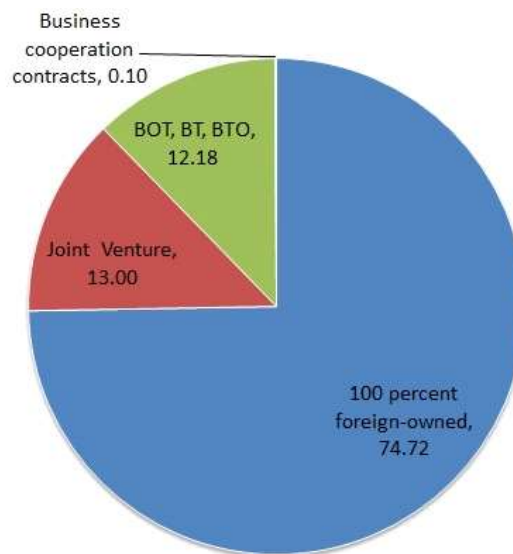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자료 :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

표 3. 베트남 FDI의 유형

(단위 : %)



자료 :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

- 또한, 베트남은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이 남긴 심각한 환경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.
 - o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67%가 후진적 에너지소비 기술을 이용하여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.

2 원인과 분석

▶ 그 동안 베트남의 경제 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해옴.

- 지난 20년 간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위한 점진적 개방 정책을 고수함. 베트남 정부는 수출 지향적 전략을 채택해 일자리와 창출과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 유치에 집중함.
 - o 대부분의 해외 투자액은 수출 지향 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, 이로 인해 베트남에 진출한 해외 기업과 베트남 국내 기업 사이의 경쟁력 격차가 심화되어 베트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저하됨.
-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전기조립, 섬유, 제화와 같은 저부가가치-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.
 - o 이는 베트남의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임.
 - o 또한, 기간산업 분야의 개발 수준이 낮다는 점도 작용함.
- 베트남경제관리중앙연구소(CIEM)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, 80% 이상의 베트남 국내기업은 해외 투자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기술 이전도 받지 못함.
 - o 이는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 방식에서 비롯되었는데, 해외 투자자 지분 100%로 출자하기 때문임.
 - o 취약한 베트남 기업의 실정과 기간산업의 부재로 해외 기업들은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꺼리는 상황임.

▶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환경 규제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.

-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도 환경 보호 규정이 존재함. 그러나 규정이 실제 이행되고 있지는 않음.
 - o 베트남 정부는 최대한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환경 보호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지 않음.
 - o CIEM에서 베트남 내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, 45%의 기업

이 배출가스 감소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, 대규모 산업단지 중 75%, 소규모 산업단지 중 85%가 중앙하수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음.

- 2016년 4월에서 6월 사이, 대만 기업인 포르모사 철강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로 베트남 중부 해안지역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함.
 - 베트남인들은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들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.

그림 1. 베트남 중부 해안지역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



자료 : Reuters

3 전망과 시사점

앞으로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.

- 베트남은 세제 개혁, 기업환경 개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 또한,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(TPP) 및 아세안경제공동체(ACE)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더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됨.
 - 베트남의 TPP 가입에 따라, 기존에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됨.
- 2016년에는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함.
 - 섬유, 제화과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반도체, 전자분야와 같은 중·고부가가치 산업에서도 증가하기 시작함.

-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하이테크(High-tech) 산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전체의 약 40%를 차지함. 향후 고부가가치-하이테크 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.

☞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고부가가치 창출, 기술 발전 및 환경보호 원칙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.

-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은 경쟁력 높은 제품 생산과 ICT, 반도체, 생명공학 기술 등 첨단 기술의 국내 이전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.
 - 베트남 정부 당국은 현지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으로 설립된 사업체의 낙후된 설비 사용을 규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외국인 직접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규정 역시 개선되어야 함.
 -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초래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.
-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의존도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함. 외국인 직접투자 분야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71%, 수입의 60%를 차지하고 있음.
 -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, 기술 이전과 확산 효과 등을 통해 국내와 해외와의 글로벌 가치 사슬(Global Value Chain)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. **EMERiCs**

출처

- The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(GSO)
- Foreign Investment Agency of Vietnam (FIA)
- 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 (CIEM)